

「바오로의 해」를 폐막하며!
(2008. 6. 28 - 2009. 6. 29)

◆ 커가는 사랑

바오로 사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느끼고 깨달은 바가 크다고 말하는 신자, 수도자, 성직자들을 많이 만났다.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그 사랑에 잠긴다는 것은 곧 바오로 사도처럼 주님께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가슴 속에 간직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구원과 자유의 기쁨을 나누려는 열정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일 것이다.

성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바오로 사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삶에 충실하고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불꽃을 키우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세상 안에 스며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예수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온 생애를 통해 살아간 바오로 사도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게 하신(갈라 2, 20절 참조) 모범이시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임없이 자신을 재촉했다’고까지 고백했던 바오로 사도였다.(2코린 5, 14) 이 말씀은 나약한 믿음 앞에서 번번히 좌절하거나 실망하기 일쑤인 우리를 채찍질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하느님은 바오로 사도가 느꼈던 인간적인 두려움, 과거의 헛된 열정과 박해까지도 당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고된 현장과 내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 안에서 만나는 갈등과 고통의 그 순간이 사랑이신 주님을 모셔 들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애써 주님의 소리를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사랑은 내 바로 곁에 그리고 내 안에 있다.

신학자 오코너는 “신앙이란 사랑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1)자기를 바치는 사랑 2)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3)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바친 희생의 사랑,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위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재창조하신 내어주는 사랑이다.

바오로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상적인 사랑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라고 강조한다.(로마 8, 35-37) 우리 중에는 자기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렇다면 이제 바오로의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된 사랑을 실현시킬 때가 왔다. 서로를 깊이 아끼고 희망 속에 기뻐하고 겸손과 인내와 신뢰,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로마서 12, 9-21 참조), 성령께서는 이 열성이 더욱 타오르게 하시면서 오늘도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신다.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

「사제의 해」를 개막하며!
(2009. 6. 19 - 2010. 6. 19)

◆ 사제의 해,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지난 3월 16일 교황청 성직자성 정기총회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무엇보다도 사제 직무의 효력이 달려 있는 영적 완덕을 향한 사제들의 노력을 복돋우고자 오는 6월 19일부터 2010년 6월 19일까지를 특별히 '사제의 해'로 지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가 "그리스도의 양떼를 섬기는 목자의 참된 모범인 아르스의 본당신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5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대목에서 교황이 사제의 해를 선포한 취지가 무엇인지, 왜 이 기간을 사제의 해로 선포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 취지는 "영적 완덕을 향한 사제들의 노력을 복돋우고자" 곧 사제들이 대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착한 목자로서 자신들의 사제직에 더욱 충실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다. 교황이 사제의 해 주제를 '그리스도의

충실, 사제의 충실'로 선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교회와 현대 사회 안에서 사제의 역할과 사명이 지니는 중요성을 사제 자신들은 물론 하느님 백성 전체가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성직자성과 인류복음화성 등 교황청이 발표한 문서들에 따르면, 사제의 해는 무엇보다도 사제직과 각 사제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느님 백성 전체가 사제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해가 돼야 한다. 따라서 사제의 해는 사제의 신원과 가톨릭 사제직에 관한 신학을 비롯해 교회와 사회에서 사제의 소명과 사명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해, 사제들이 사제들과 함께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해, 사제직의 영성과 사제 개인의 영성을 쇠신하는 해가 돼야 한다는 게 교황청의 주문이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클라우디오 우메스 추기경은 각국 주교회의 의장 주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사제의 해는 외적인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사제들이 내적 쇠신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신원과 사제단의 형제애, 자기 주교와 이루는 성사적 관계를 기쁜 마음으로 재발견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신문 발췌

2009년 6월 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11.00
교 무 금	: \$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성 모 상	: \$
합 계	: \$ 711.00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쁨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본당소식

◎ 오늘은 남북통일 기원미사를 드립니다.

◎ 사목회의 안내
6월 28일 주일 미사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친교 식사는 휴무합니다. 그 동안 수고 해주신 성모회 회원들과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6월 구역모임 공지
▶ 캄브리지구역 : 27일(토) 6PM 박용국 대 형제대
▶ 키치너 구역 : 27일(토) 6PM 교육관 대 형제대
▶ 워털루 1구역 : 27일(토) 6PM 교육관 대 형제대
▶ 워털루 2구역 : 20일(토) 6PM 교육관 대 형제대
▶ 워털루 3구역 : 27일(토) 7PM 교육관 대 형제대
▶ 워털루 4구역 : 27일(토) 6PM 교육관 대 형제대

◎ 성모 동산 건립 기금 모금 안내
비록 시간이 걸리고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모님을 공동체 안에 모시는 것이 뜻 깊다고 보아 지향기금봉투를 성전 입구에 비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바랍니다.

◎ 로고스회(성경모임)안내
6월 23일(수) / 6월 26일(금) 미사 후
평일미사에 참여하시면 성경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 성가대 단원모집
▶ 단원 모집: 성음악에 관심이 있는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남녀 교우와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가연습 : 매주 목요일 7:30PM 교육관
매주일 4 PM 대성전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새롭게 시작하는 예비자반 모집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포스터가 준비되어있으니 많이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문의 : 박재영 바오로 ☎ 519 747 4981

◎ 온타리오주 한인 8개 본당 친선 골프대회
일시 : 6월 30일(화) 12:30 PM

장소 : Carlisle GC
◎ 7월 안내 담당은 키치너구역입니다.
▶ 8월 : 워털루 3구역
▶ 9월 : 워털루 1구역
시간 봉사도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봉헌입니다. 안내 담당 구역은 미사 1시간 전에 나와서 미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캄브리지 구역 : 6월
▶ 브랜포드 구역 : 7월
▶ 워털루 1구역 : 8월

봉사는 1달에 2회이고, 격 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 홈스테이 모집
오는 7월 14일-8월 12일(1개월) 동안 인천교구 박문여고 학생들이 우리 본당 협조로 여학연수를 옵니다. 캐나다인 가정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니 교우들께서는 키치너-워털루에 거주하는 친분이 있는 캐나다인 가정을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노재현 아칼레오 ☎ 519 590 4493

■ 본당신부 단상(斷想)
사제관 아래층에는 교육관 겸 소성당이 있습니다. 사제관 뒤뜰도 넓찍하니 참 좋습니다. 목주알을 굴리며 뒤뜰을 거니노라면 성모상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가끔은 신자들이 저와 함께 성모상 앞에서 목주기도를 바치는 상상을 해 봅니다. 깔끔하니 정돈된 소성당에는 해밀턴 교구장님으로부터 받은 엔틱 감실이 있고, 감실에는 늘 성체가 모셔져 있습니다. 평일미사 시간 이외에는 신자들의 발 길이 끊어져 “홀로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비록 대성전은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체를 모신 소성당이 있으니 우리 공동체는 많은 것을 가진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성당을, 성체가 모셔져 있는 소성당에 교우들이 자꾸만 들락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에, 퇴근 길에, 교대할 때 일부러라도 소성당에 들러서 5분정도, 10분정도라도 성체조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더라도 초인종만 누르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소성당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성체조배의 참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덧붙임 : 평일 미사 전 후에 제대 커튼이 열려져 있을 때는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여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09-27호 2009. 6. 2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전례

해 설 노재현 차주 해설 이 민

성 가
입 당 (480) 믿음으로
봉 헌 (221) 받아주소서
성 체 (500) 평화의 하느님
퇴 장 (205) 사랑의 성심

화 답 송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아 주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교화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이니, 무엇보다 사랑을 입어라.

	독	서
6월 21일	장명길	장용경
6월 28일	한택중	한재희
7월 5일	박재영	박경미

	봉	헌
6월 21일	이 민	이활란
6월 28일	장명길	장용경
7월 5일	한택중	한재희

	복	사
6월 21일	류지현	노승범
6월 28일	구한형	강수현

	친	교
6월 21일	영광팀	6월 28일 장미팀